

연구비까지 줄이는 지역 대학... 교육의 질 하락 걱정된다



광주·전남 대학들이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연구비를 감축하고 교직원 급여를 동결하는 등 생존 전략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왼쪽부터 전남대·조선대·동신대 전경.

대학들이 허리띠를 한껏 졸라매고 있다.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연구비를 감축하고 교직원 급여를 동결하는 등 '돈줄'을 조이면서 발전기금 확보 및 대학원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칫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구비 감축 '독(毒)되나' =전남대는 지난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연구역량상장료'를 주던 정책을 잠정 보류했다. 최근 3년간 교수들의 연구역 향상을 위해 지원해왔던 정책이지만 재정형편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대학 입장이다. 전남대는 그동안 '연구역량상장료'이란 명목으로 ▲2014년 8억600만원 ▲2015년 8억1800만원 ▲2016년 9억4400만원 등을 지원하며 연구역 향상에 공을 들였다. 부족한 발전기금때문이지만 당장, 교수들의 연구역 향상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때 전남대는 올 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수논문장려금'을 줄이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었다. 당시 전남대는 ▲2013년 30억5000만원 ▲2014년 30억8100만원 ▲2015년 38억4200만원 ▲2016년 30억8100만원이던 우수논문장려금을 27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신입 총장의 강한 반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됐다.

전남대는 그동안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Cell, Nature, Science 등)에 주저자로

재정난 광주·전남 대학 지구책 마련 골머리 전남대·조선대 등 신입생 감소에 초긴축 운영 발전기금 확보·유학생 유치 등 재재확보 총력

신문을 게재한 교수에게는 1000만원의, SCI급 논문인 경우 영향력 수준에 따라 100만~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SCI에 등재된 첫 번째 논문 장려금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과거 2년 대비 0.25배 이상 논문 게재 수가 증가한 교수에게도 별도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공들인 만큼 성과는 수치로 입증됐다. 전남대는 지난해 대학공시 내용 중 국제논문 발표 부문에서 10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위(630건)에 올랐다. 최근 10년간 발표한 SCI 논문 중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도 서울대와 경북대에 이어 '국립대 3위'에 랭크되는 성과를 냈다. 세계 대학순위를 매긴 '2016 라이덴 랭킹'에서는 서울대에 이어 국립대 2위에 오른 바 있다.

이같은 결과 등을 감안, 자칫 '연구역량상장료'의 폐지가 대학 경쟁력 하락 및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선대도 예산 절감을 내세워 교수 한 명당 교내 학술연구과제를 2개까지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을 변경,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예산을 편성했다.

◇급여 묶고 발전기금 조이고 =조선대는 지난 2014년 5099명이던 입학생 규모가 2015년 4629명으로 470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4552명으로 감축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다. 여기에 의·치학 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학생 수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전년도에 견주어 줄어드는 수입은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당할까 6년째 인하·동결한 등록금을 올릴 엄두도 못했다.

교직원 급여도 동결 기조다. 조선대는 최근 3년간 급여 인상분을 발전기금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2013년 2억2350만원 ▲2014년 8억7000만원 ▲2015년 18억 1700만원을 절감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쓸 데가 많다보니 아우성이다. 당장, 적립금에서 200억 이상을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조선대는 지난해 813억이던 대학 적립금 규모를 500억대로 줄이는 '2017학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강동완 총장과 대학측은 동창회, 교외 행사 등을 찾아다니며 때마다 약정서를 들고 다니며 발전기금 유치를 공을 들이고 있다. 학생·학부모·동문, 지역민 등을 중심

으로 한 소액기부운동을 추진, 86억원 가량을 모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는 게 학교 구상이다.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유물, 미술품, 특허, 기타 지적재산권 등도 받아 현재 19억원의 발전기금을 약속받은 상태로 8억원은 입금까지 진행됐다. 전남대도 700억원의 발전기금 확보를 내걸었다.

◇대학원생·유학생 유치 사활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해 재정난을 덜어줄 정책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순천대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순천대는 인도네시아 짜안출에 개소한 농업교사연수원 한국사무소를 비롯, 자카르타와 말랑 지역 대학 등 3곳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국어 연수생 확보에 나섰다.

순천대는 이같은 전략으로 매년 감소세(2014년 52명→2016년 42명)인 학위 과정 유학생을 늘리고 연수과정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확보, 재정난을 덜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조선대는 대학원생 유치를 공을 들이고 있다. 조선대는 최근 '학·석사 연계과정'을 개설, 대학원생 모집에 나섰다. '세 학기 만에 석사 과정을 끝낼 수 있고 학기 등록금만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게 가능하다'며 홍보하는 데는 90.4% 수준이던 신입생 총원율(2015년)이 지난해 86.8%까지 떨어지는 등 학생 수 감소 여파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6개 사업 187억·조선대 5개 98억원...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주 '올인'

지난해 대학별 지원 현황

정부 재정 지원사업은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역 대학들에게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발데처럼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6년 대학역량강화사업 현황'을 들여다보면 광주·전남 대학별 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사업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BK21플러스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대학특성화사업(CK) ▲프라임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여성 공학인재 양성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사업 등 8개다.

전남대의 경우 ▲BK21플러스 67억 4400만원 ▲대학특성화사업(CK) 42억 43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6억원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29억원 ▲여성 공학인재 양성사업 7억5000만원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사업 4억7000만원 등 가장 많은 6개 사업을 지원받았다. 조선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

업'(LINC)으로 37억원을 지원받았고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23억 5100만원), 'BK21플러스사업'(11억2000만원), '대학특성화사업'(CK) 19억6800만원,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사업' 7억 20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냈다.

동신대의 경우 ▲프라임사업 48억 72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33억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17억6100만원 ▲대학특성화사업(CK) 15억7600만원 등 4개 사업을 따냈다.

호남대는 '프라임사업' 45억9400만원, '대학특성화사업' 32억67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36억5000만원 등 3개 재정지원 사업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인 목포대는 대학특성화사업(12억2200만원)과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24억5000만원) 등 2개를, 순천대는 대학특성화사업(38억5300만원), ACE 사업(18억9100만원), BK21플러스사업(3억3200만원) 등 3개 사업 지원비를 받았다.

광주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40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립대, 국고사업 유치·취업률 상승세...김왕복 총장 성과 '눈길'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이 오는 28일 퇴임한다. 김총장은 지난 2014년 8월 취임 이후 3년간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이라는 역할에 걸맞은 운영방침을 확립했다는 게 내부 평가다.

우선, 총장 재임 기간 '특성화전도대 육성사업'을 비롯,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창업보육센터 BI 지원사업, 니주 산학융합지구

(제 2캠퍼스) 조성 사업에 선정되는가 하면,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는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도립대가 5개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지원사업비는 602억원 규모다.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인 점도 눈길을 끈다.

도립대는 김총장 재임 기간, 현장 수요

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가 직무능력 표준(NCS)에 맞춘 교육과정을 전면 도입했다. 아울러 우수 산업체, 가족회사 등 358개 회사와 협약을 체결, 졸업 뒤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재학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립대의 졸업생 취업률도 이같은 점 등으로 2013년(62.6%)→2014년(66.1%)→2015년(68.8%) 등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실제 부담액도 학기당 25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취업계층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 점도 관심을 끈다.

김왕복 총장은 "130억 규모의 복합생활관 신축에 필요한 설계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창의력과 적응력을 겸비한 다능인재(Multi-Tasking) 양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교육단신

매주 토요일 도서관 프로그램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친구야! 도서관 가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독서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3개 강좌로 꾸러졌다. 또 매주 화요일 열리는 어린이 도예교실, 창의수학&보드게임 참가학생도 모집한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며 교재·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모집 인원은 20~25명으로 인터넷으로 선착순 진행한다.

광주대 기업 예코백 만들었어요

광주대 학교기업인 이모든(EMODEN)은 무등산을 디자인으로 한 예코백(ECO-BAG)을 출시했다.

무등산을 기본 디자인으로 친환경 캔버스 원단을 쓰고 지그재그로 짠 스타일의 워빙 기법으로 손잡이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주거용오피스텔(5층)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평가 21억3천 ▶ 최저가 14억9천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평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부근 상가건물(4층) 토지 865㎡ 건물 1,514.31㎡ 감평가 20억7천 ▶ 최저가 14억5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현게스트하우스 낙안읍성안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평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중고시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개인사찰 토지 1,587㎡ 건물 514.19㎡ 감평가 17억1천 ▶ 최저가 7억6천6백
- ★ [공장] 광주 서구 동천동 유촌마을 복서축 인근 토지 1,226㎡ 건물 323㎡ 감평가 12억1천7백만 ▶ 최저가 6억8천2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토지 3,234㎡ 건물 4,281㎡ 감평가 37억8천7백 ▶ 최저가 9억9천2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요양병원최적지 매매 37억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영암 신북면 신북면사무소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 2,535㎡ 무인텔, 대형마트 최적화부지 투자가치높음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접)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3,943㎡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의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층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